

유한김벌리

北 산림 복원사업 팔 걷어 양묘 지원사업 준비 ‘착착’

유한김벌리가 남북 경제협력에 본격화하면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하기 위해 북한 양묘 지원 사업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한김벌리는 올해 가을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에서 소나무와 쉬나무 등 묘목 21만 본이 첫 출하되면 북측이나 비무장 지대 숲 복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유한김벌리는 1999년부터 1300만 그루에 해당하는 나무 종자와 묘목 지원 사업을 해왔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고성 등 북한 지역에서 양묘 지원 사업을 해오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9년 이후 중단했다.

이 회사는 NGO단체인 생명숲 및 산림청과 2014년부터 비무장 지대와 북한 산림 황폐지 복구를 위해 1.1ha 규모의 양묘센터 조성에 나섰다. 지난해 9월에는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를 완공했다.

이 양묘센터는 한반도 생태복원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 생명숲과 협력해 운영하는 양묘 생산시설로,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쉬나무 등 연간 45만본까지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유한김벌리 관계자는 “북한의 숲 사정을 보면 일제 강점기와 6·25, 그리고 에너지 부족에 따른 연료림 대체로 많은 산림이 소실됐다”며 “북한 산림 복구를 통해 한반도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지역의 산림 황폐화가 가속하면서 1910년 70%에 달한 한반도의 숲은 2015년 52%로 줄어든 상태다.

실제 북한 지역에선 최근 20년간 매년 여의도 면적의 430여배에 달하는 12만7000ha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산림 황폐화로 반달가슴곰 등 70여종의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한반도 생태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녹색 댐 기능 약화로 우리나라도 임진강 범람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유한김벌리는 남북 협력이 가능해지면 북한의 생활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도 갖고 있다. /김승호 기자

서울상공회의소

우수 중소기업 제품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서울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을 위한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상의는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모바일 홈페이지와 상품 전자 카탈로그를 제작 지원한다. 국내외 모바일 쇼핑시장 판매채널을 구축하고, 판매 노하우를 교육한다.

서울상의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60%가 모바일 홈페이지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과 함께 네이버·아마존·타오바오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을 위해 입점방법에서부터 운영, 판매, 마케팅에 이르는 모든 지원을 원샷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40개사는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편 설명회는 14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다.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소개와 함께 모바일 쇼핑시장 진출전략, 아마존·타오바오·네이버를 통한글로벌 쇼핑시장 진출 전략이 소개된다. /정연우 기자 yw964@

아파트 도면, 2초 만에 3D로

메트로가 만난 기업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갖고 놀기 좋아하던 건축학도는 결국 컴퓨터로 밥벌어 먹는 일에 승부수를 걸었다.

자신보다 잘 하는 건축가가 많아 이것만으론 승산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유명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련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건축을 아예 포기하진 않았다.

더욱 자신 있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건축에 접목시켜 사이버상에서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들기 위한 꿈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유튜브는 모든 사람이 영상을 올리면 전 세계인이 이를 공유하고 활용한다. 유튜브가 그랬듯이 우리는 집단지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세계 최초·최대의 ‘가상화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우리 플랫폼에선 건축물 등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간 정보들을 3차원(3D)으로 올릴 수 있고 또 이들 데이터를 내려받아 AR(증강현실) 또는 VR(가상현실) 등으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공간 정보에 관련한 글로벌 최고의 가상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3D 공간 정보 분야의 유튜브’.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가 그리고 있는

451만 가구 3D 데이터 보유 전국 아파트 단지 70% 달해

공간정보 3차원으로 공유하고 AR·VR로 즐기는 ‘플랫폼’ 목표 “3D 공간정보의 유튜브 되고파”

그림이다.

어반베이스의 ‘가상화플랫폼’이 전 세계 공간 정보의 ‘보고(寶庫)’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2차원 평면이 아닌 3D 입체로 말이다.

어반베이스는 건축물의 평면도를 단 몇 초만에 3차원으로 바꿀 수 있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 이 기술이 어반베이스의 핵심이다.

하 대표는 “일반적인 도면에 그린 것을 3D로 바꾸는데는 2초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전국 아파트 단지의 70%에 달하는 약 451만 가구의 평면도를 3D 데이터로 가공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LG전자나 가구전문점 일룸 등의 매장에서 어반베이스의 3D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면적과 색깔 등에 어울리는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을 3D 화면을 보면서 골라볼 수 있다. 어반베이스닷컴 홈페이지에는 전국 아파트 451만 가구의 3D 데이터가 고스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가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란히 올라가 있어 온라인 상에서 집꾸미기를 하는 등 활용도가 다양하다.

어반베이스가 만든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이용한 기술은 이처럼 실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재난 등 안전분야에서도 폭넓게 쓰일 수 있다.

실제 하 대표는 2014년 봄 세월호 사고가 났을 당시 잠수부들이 구조에 애를 먹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물속에 잠긴 배의 모습을 3D로 만들어 구조본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 대표가 친구와 회사를 차리기 바로 직전이었다.

“인터넷 사이트들을 뒤져 세월호 도면을 구해 이를 3D 정보로 바꿨다. 과거에 발생한 대형 사고들을 상기할 때 AR 또는 VR로 공간정보를 접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공적인 일엔 어반베이스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어반베이스는 올 가을에는 건축가나 디자이너 등을 위한 새로운 버전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의 시장도 노크하고 있다.

젊은 회사 어반베이스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발짝 더 나아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사회적인 대세라면 회사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 40시간 근무를 도입해 개인의 자율성을 높인 것도 이런 이유다. 다만 여기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구성원들이 이를 악용하지 않고 약속한 것을 지키면 성공한 것이다.”

하 대표의 말이다.

마침 어반베이스는 11일로 꼭 창립 4주년을 맞는다. 곁마를 한창 시작한 어반베이스는 올해 ‘더닝포인트’를 위해 이렇게 달달 준비를 마쳤다.

/글·사진=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코웨이,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무상 지원 코웨이는 환경부와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기청정기를 무상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 처음 참여한 코웨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총 16곳에 공기청정기를 무상 지원하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준 코웨이 커뮤니케이션실장(오른쪽)이 유재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이대목동병원, 4대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평균점수보다 크게 상회

이화의료원은 이대목동병원이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등 4대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대장암(6차), 유방암(5차), 폐암(4차), 위암(3차) 적정성 평가 결과, 이대목동병원은 평균점수를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심평원은 2016년 한 해 만 18세 이상 4대 암 환자가 치료받은 내용을 분석했다. 평가 항목은 암 치료 전문 의사 구성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

여부, 수술·방사선·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적정 시행 여부, 평균 입원일수 및 입원진료비 등이었다.

특히 이대목동 병원은 해당분야 평가가 시작된 이래 대장암 6회 연속, 유방암 5회 연속, 폐암 4회 연속, 위암 3회 연속 1등급을 받아, 4대 암 부문에서 연이어 1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치료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자이클 여름 신제품 ‘스탠드형 통바람·냉풍기’

자이클은 여름을 맞아 ‘자이클 스탠드형 통바람’과 ‘자이클 냉풍기’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탠드형 통바람은 바람의 방향을 아래로 1단, 위로 7단 각도 조절이 가능해 더위와 실내공기 환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멀티형 공기순환기다. 일반 선풍기와 차별성을 둔 심플한 디자인에 무게는 1.94kg로 가벼워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다.

스탠드형 통바람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기순환시스템’이다. 특히 거실 에어컨과 같이 사용할 경우 집안의 온도를 통바람으로 빠르게 순환시킴으로써 에어컨 과다 사용을 줄여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자이클 냉풍기’는 선풍기보다 시원하고 에어컨보다 전기료 부담이 적은 기



냉풍기 스탠드형 통바람

화냉각 방식의 냉풍기로, 세련된 느낌의 블랙 컬러 곡선형 디자인이 특징이다. 물과 얼린 냉매팩을 물통에 넣고 냉풍 버튼을 누르면 더욱 차갑고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으며, 건조한 실내에서 사용 시에는 가습효과까지 있어 일석이조다.

가격은 통바람이 19만8000원, 냉풍기가 11만9000원이다. /김승호 기자

바디프랜드-삼성물산 안마의자에 ‘IoT’ 접목

스마트홈 체험관서 제품 선택

바디프랜드와 삼성물산이 손을 잡았다.

바디프랜드는 이달 초 문을 연 삼성물산의 스마트홈 체험관 ‘래미안 IoT 홈랩(HomeLab)’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안마의자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체험관 안에 조성한 영화관(휴머터)에서는 IoT를 통해 스마트 기술을 구현하는 바디프랜드의 프리미엄 안마의자 ‘파라오S(사진)’를 만나볼 수 있다. 사용자가 영화를 보기 위해 파라오S에 앉아 안마의자 마사지 기능을 작동시키면 그에 맞춰 커튼이 쳐지고 조명이 어두워지는 등 영화 관람에 최적화된 환



경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각각의 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 특성과 행동 패턴에 맞게 기기가 알아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한다.

삼성 래미안 IoT 홈랩에서는 안마의자 파라오S 외에도 바디프랜드가 판매하는 라클라우드의 고급형 침대 ‘마로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